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주류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냉동 디저트의 제조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주류를 이용한 아이스크림과 다른 냉동 디저트의 제조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률(S7013/A8732)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낙농업자, 주류 및 공예 음료 생산업체, 유가공 및 제조업체, 식품 소매업체 및 레스토랑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음료 산업은 뉴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성장하는 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농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의 알코올 비중을 중량 당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며, 와인, 맥주 또는 사이다를 함유한 과자와 유사한 상품과 동일한 제품 라벨 및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미 맥주와 와인, 사과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책임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덕분에 공급 업체는 이제 고객에게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의 낙농 산업과 주류 및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모두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께 크게 감사드리며, 내년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에서 메이플 버번 아이스크림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특정 스페셜티 아이스크림에 와인, 맥주, 사이다를 첨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언제든지 낙농가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에도, 관광에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증류소는 뉴욕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뉴욕 증류주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이 산업이 뉴욕주 전체 경제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면허 도입, 법률

현대화, 규정 완화, 세금 감면, 수수료 감면, 혁신적인 프로모션 캠페인 개시 등을 통해 신규 크래프트 제조업체가 더욱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지사의 첫 번째 와인, 맥주 및 증류주 정상 회담(Wine, Beer and Spirits Summit)이 열린 이후, 면허는 2012년 10월 282개에서 현재 823개로 190 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모든 종류의 크래프트 주류 생산업체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다섯 곳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발효 사과주 생산업체를 첫 번째로 그리고 맥주 양조장과 수제 증류소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인 양조장은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